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

국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되었다는 소식에 매우 상심이 크실 것입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도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평화애호 국민으로서 모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랍된 우리 국민들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을 볼모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의·다산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 부대입니다. 그동안 매일 수백 명의 주민들을 진료하고 복지시설과

교량 건설 등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납치단체는 우리 국민들을 조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돌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귀한 인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조속한 석방을 위해 관련된 사람들과 성의를 다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피랍된 우리 국민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믿고 침착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